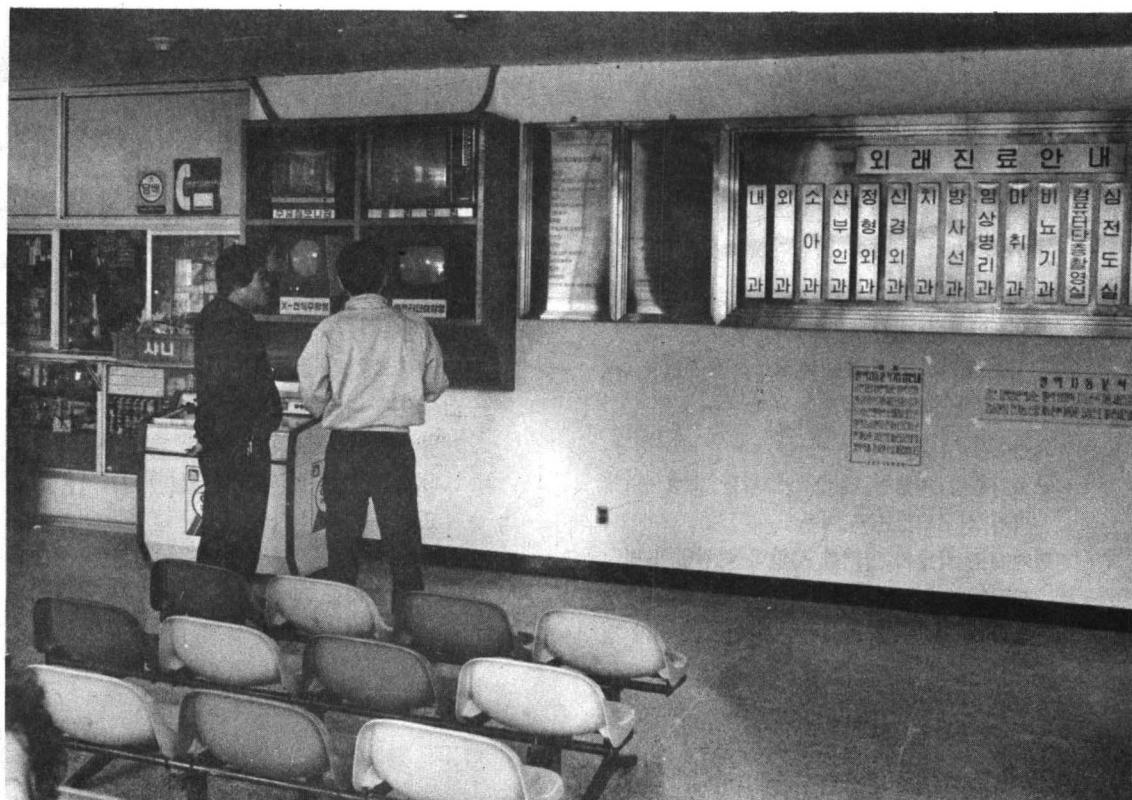




堤川주민종합병원



◇ 주요촬영모습 및 수술장면은 볼 수 있게 모니터를 설치한 병원로비.



權
湧
河
이
사
장

주민건강의 대들보 역할

「山紫水明」「清風明月」의 땅, 忠北 堤川은 아직도 옛사람들의 지적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느낄 정도의 아름답고 人心 좋은 고장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면 중부지방 가장 내륙 깊숙히 자리잡은 곳이 忠北 북부지방 제천과 단양이다. 한편 옛부터 강원도에서도 오지로 불리는 영월 평창 정선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교통이 불편하면서도 내륙교통의 요충을 차지한 곳.



◇ 지역적 특성으로 병상 규모에 비해 응급차량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항상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는 구급차들.

오늘에도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 열차가 2시간1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지만 지역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의 불편을 느끼기는 예와 마찬가지다.

제천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忠北에는 아직 의료전달체계上道内 3차기관이 없다. 더구나 제천은 거리로 강원도 原州가 가깝고 시간으로 서울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내 2차 의료기관으로서도 충분한 실정이다. 그러기에 2차기관의 모습과 내용이 알차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제천은 물론 이웃 단양, 道界는 달리 하지만 지역적으로 같은 강원도의 영월 평창 정선지방을 통털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종합병원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제천주민종합병원은 이 지역 주민건강의 튼튼한 대들보로서 기여하고 있다.

지역종합병원으로 역할

제천주민종합병원은 현재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과 등 10개 진료과를 개설, 종합진료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밖에 위내시경실 직장경실 심전도실 대장특수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컴퓨터단층촬영실 미숙아실 중환자실 등 특수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인턴수련병원으로 의사수련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희의대부속병원과 모자병원관

계를 맺고 의사교류 및 환자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생활보호환자들의 진료 도맡아

특히 지난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며 1백20병상을 전면 가동하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 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상부족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내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데다 주변들이 「내지역 병원」이란 관념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주위의 설명이다. 특히 제천주민종합병원은 지역내 하나뿐인 생활보호환자진료기관으로서 모든 생보환자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이 병원의 경영진, 의료진과 직원 등이 한마음이 된 「우리지역병원」으로서의 노력 때문에 이제 제천주민종합병원은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의료기관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탄탄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지역병원으로」 다시 출발

제천주민종합병원이 이러한 기반을 갖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경영의 길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지원차관병원들이 아직까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병원만큼 그야말로 「우여곡절」이란 표현과 같이 험난한 경영의 길을 걸어온 병원도 드물다.

이 병원은 지난 81년 1월 OECF차관으로 건립, 개원한 제천중앙병원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제천중앙



◇전국민의료보험이후 병
실난이 심각하다. 원무과
의 업무모습.

병원은 위치선정의 잘못과 과중한 이자부담 등으로 4개월만에 부도를 내고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문을 닫게 할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전면 공중보건의사를 투입, 운영을 계속 했으나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85년 들어서 민간에 넘기기 위해 경매에 부쳤으나 유찰됐다.

한 지역병원이 폐쇄, 주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나섰다. 이 지역출신인 權湧河이사장으로 대표되는 基松의료재단이 구성되어 이 병원을 인수, 지역병원 살리기에 나섰다.

권이사장 등 경영진은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병원을 살리자」고 주민회의 등 각종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가, 호소했다. 그러나 한번 기울어진 경영을 되살리기에는 많은 고초가 따랐다. 운영자금의 부족, 한번 도산한 병원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극복하기란 그야말로 황무지개간 보다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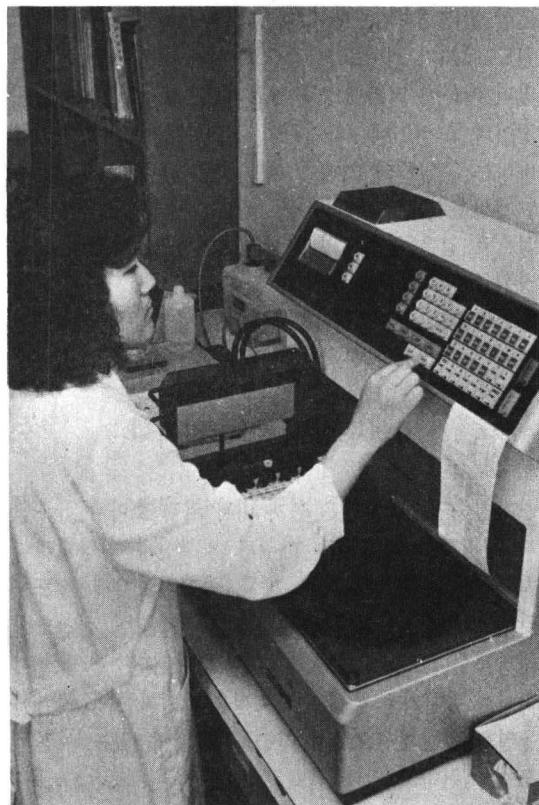
「최선을 다하는 病院人」

권이사장은 그때 당시를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며 앞으로를 다짐했다.

『한번 도산한 병원의 이미지를 바로 잡기란 병원을 새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인수 당시는 병원이 세워진지 5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미 건물시설장비 등의 개수 보수 교체시기였습니다. 운영자금마저 어려웠는데 이러한 시설과 장비에 드는 자금마저 겹쳐 어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지역주민들이 「우리고장의 병원을 살리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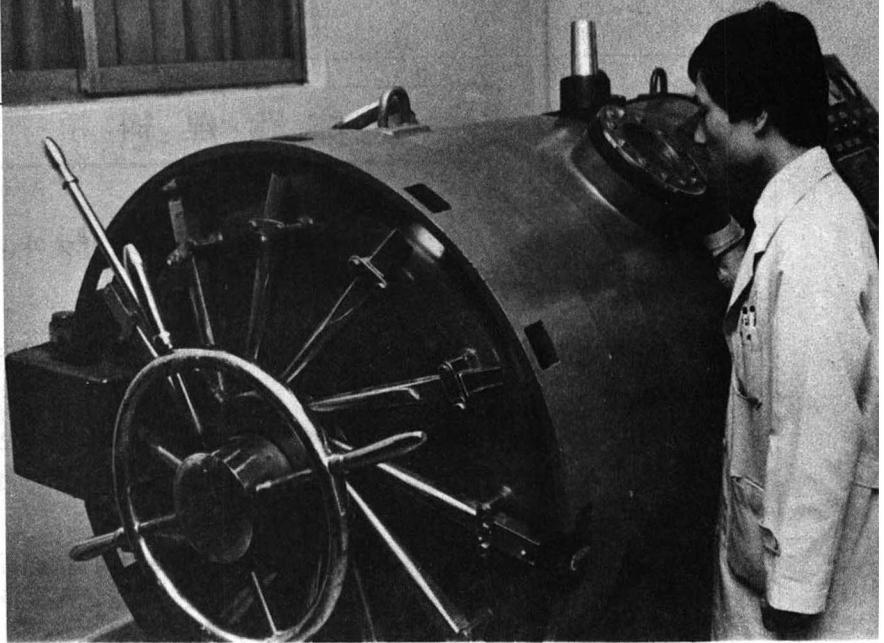
정신으로 도와 주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병원의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되돌려,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봉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천주민종합병원의 原訓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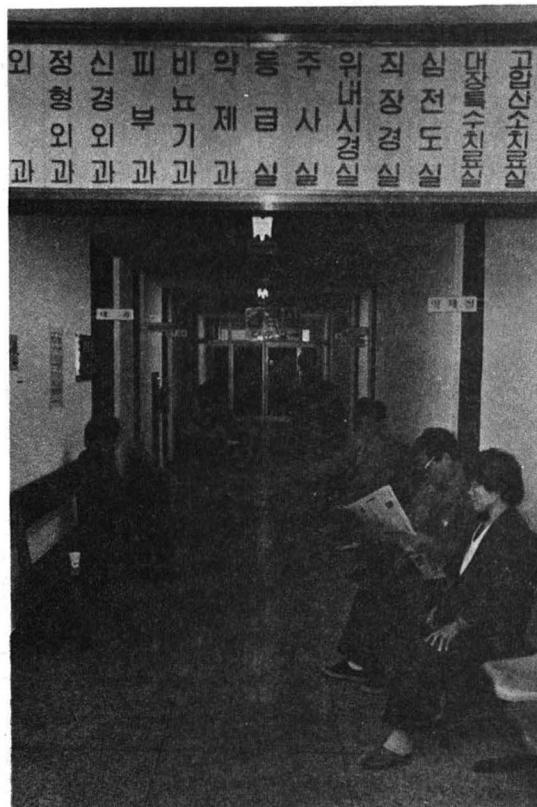
◇최근 신속정확한 진료를 위해 스위스로부터 도입한
혈액자동생화학분석기.

◇ 지역내 유일한 고압산소 탱크·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연탄가스증독사고 치료 등에 매우 유효하게 이용된다.



病院人」이다.

이 병원이 그동안의 경영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으로서의 모습은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병원 모든 가족들은 「환자를 내몸



◇ 진료과목이 붙어 있는 외래진료 대기실 모습.

같이」「병원을 내집같이」「우리는 주민가족」이란 실천목표를 내세우고 불철주야 지역사회 주민건강을 위한 봉사를 다짐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영진은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경영」「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란 3대 경영방침을 표명, 경영정상화를 이룩했으며 앞으로의 병원발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 의료진 직원들의 노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 곳곳에서 느껴볼 수 있다. 경영진과 간부직원들의 모습을 입구 안내에서부터 로비, 병실 등 어느 곳에서나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24시간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육성책 시급

권이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지역병원과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이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사구인난 해소 △각종 진료비 적체 해소 △의료수가의 현실화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병원이 설립한 후 10년이면 시설장비 등의 교체시기를 맞습니다. 한창 자금이 소요될 때입니다. 그런데 차관취약지 민간병원들은 차관원리금도 상환을 유예하고 있을 지경이니 재투자에는 손도 못댑니다. 재투자를 못하면 현재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의학과 의료장비가 발달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주민들이 의견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지요. 정부의 지원과 육성책이 시급합니다. *」